

NEWS

2025년 3월 4일 화요일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 속도 붙는다

전남도, 시 특별방역 연장 14일까지 '심각' 단계 유지

전남도는 3월 14일까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철새 북상 시기가 늦어지고, 기금농장 이동제한 해제에 따른 입식농가 증가 등 추가 발생 위험이 높아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전남도는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운영하며, 강화된 정밀검사 체계를 지속할 방침이다.

기존에 발령·시행 중인 농장 출입통제·소독 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행정 명령 11건과 공고 10건을 오는 14일까지 연장하고, 일제 입식 및 출하 기간(육계 5일·오리 당일)도 유지한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잔존 바이러스 확인을 위해 전체 기금농장, 전통 시장 가금판매소 등 확산 관련 시설 등의 일제검사를 추진한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철새 북상 시기가 과거에 비해 늦어져 언제 든지 농가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며 "가금농장에서는 철저한 소독과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임업직불금 3월 온라인 신청 전남도, 4월부터는 대면 접수

전남도는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겨 3월부터 온라인으로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선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실제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 등 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 교육 이수, 작업일지 작성 등 의무사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월 한 달간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4월부터는 산지 소재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8월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후 소득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10월께 지급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시, 국토부에 전세계 유치업체 협약 담긴 건의문 제출 국제선 운항 관련 시설물 설치 6~7개월...10월까지 가능

광주시가 '12·29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중단된 무안공항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에 본격 나선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고광안 행정부시장 등 시 관계자들은 오는 5일 국토교통부를 방문, 국제선 취항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건의문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무안국제공항이 폐쇄돼 어려움을 겪는 지역 관광업계, 경제계 등의 광주공항 국제선 취항 요구를 담는다.

광주시는 관광업계와 경제계 등을 중심으로 국제선 운항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무안공항 재개항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요구를 더는 외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거 광주공항이 일본, 동남아, 중국 등 정기편을 운항해 국제선 취항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토부를 설득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18일 관광업계, 시민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국토부에 국제선 취항을 건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시는 지난 24일 광주관광협회, 여행사, 전세기 유치업체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 업무협약'을 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광주시의 건의를 받으면 한

달 내 취항 가능 여부를 회신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승인하면 CIQ(세관·출입국·검역) 시설, 국제선 관제라인을 설치하고 국내선과의 동선을 정비하는 등 국제선 취항 준비에 착수한다.

시는 이미 국제선 운항 경험이 있는 광주공항은 서두를 경우 2개월 정도면 시설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설 정비 후에는 항공사가 국토부에 항공 운항을 신청하고, 국토부가 다시 승인하면 운항이 성사된다.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계획 등이 최소 3개월 이전부터 확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

하면, 국제선 항공 수요가 집중되는 오는 10월 이후 동계 시즌부터는 운항할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전망했다.

제주항공 참사 원인으로 지목돼 개선공사 대상인 광주공항의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도 9월까지의 공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공항에 국제선이 운항하면 무안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들이 광주로 올 것이다"며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한 빨리 국제선을 취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시, 통합방위회의 광주지역 안보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시청 충무실에서 열린 '2025년도 1분기 지방통합방위회의'에서 백복환 시민안전실장이 503여단과 공군 1전투비행단에 대한 기관 표창 및 통합방위 유공자에 대한 광주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김계리 변호사, 여순사건 기획단 해촉되어야"

김영록 전남지사 "계엄 옹호 발언, 결코 용납 안돼"

김영록 전남지사는 "반(反) 헌법적 발언을 일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를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에서 즉각 해촉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 29일 성명을 내어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비상계엄을 국민을 깨우기 위한 계몽령이라고 하는 등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며 "여순사건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충격적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담당할 기획단원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유족들도 77년 동안

물려 있던 진실이 또다시 왜곡될까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도 극우성향 인사들이 주도하는 보고서에 왜곡된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며 기획단 전원 교체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단순한 행정보고서가 아닌, 희생자와 유족의 77년간 아픔과 한을 담아 내고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라며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김 변호사 등 기획단 전원을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갖춘 전문가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의향 전남 상징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박차

전남도, 422억 투입 12월 임시개관 목표...공정률 52%

전남도가 의향 전남의 랜드마크가 될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주영성테마파크가 있던 2만 2000㎡에 연면적 7000㎡로, 현재 공정률은 52%다. 올해 12월 임시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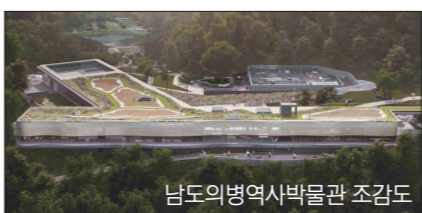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은 전남도가 20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구국운동에 앞장선 의병의 최대 산실로서 호남지역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도 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민선 7기 당시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됐다.

2024년 3월 착공에 들어간 남도의병역

사박물관은 총사업비 422억원으로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다. 메모리얼라운지,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추모전시실, 어린이박물관, 다목적강당, 카페테리아, 수장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상설전시실에서는 조선시대 최후 의병 활동부터 대한제국 시대 항일 의병 투쟁까지, 나라를 구하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진격한 의병의 역사를 다양한 조형물과 디지털매체 등을 활용해 전시할 예정이다.

추모전시실은 평범한 민초였던 의병이 자발적으로 봉기했던 애국·애족정신과 그들의 희생을 기릴 공간으로 조성하고,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조감도

어린이박물관은 다가올 미래 시대의 주역으로서 어린이 눈높이에서 의병 생활상을 체험할 교육공간으로 꾸며진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수집한 의병 관련 유물은 총 3007점이다. 주요 유물은 '호남절의록', '남한북도대도별기념사진첩', '동맹록' 등이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구입·가중·기탁을 통해 의미있는 유물을 소장하고 보존·전시·연구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시,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총력'

교통사고·자살·산업재해 종합대책 점검키로

광주시에 교통사고·자살·산업재해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한 '3대 사망사고 줄이기'에 역량을 모은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교통사고·자살·산업재해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한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정책지원단 회의'를 지난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인 만큼 시민들이 일상생활이나 현장에서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민실천단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운동본부는 정책방향 자문을 담당하는 '정책지원단'과 시민안전 의식 개선 확산 및 안전실천 활동을 전개하는 '시민실천단' 등 2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시, 광주지방공공노무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살예방센터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3대 사망사고 제로화 종합대책 추진 상황 및 올해 추진 계획을 청취하고 시민실천단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인 만큼 시민들이 일상생활이나 현장에서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민실천단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광주시는 시민실천단 활성화를 위해 안전실천 홍보 강화를 위한 실천단 간 소통 강화, 자긍심 고취 방안 등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 1454